

전체 주제:

현시대의 끝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삶

메시지 1

“노아의 시대와 같음”

성경 말씀: 마 24:32-44, 눅 17:31-36

I. “노아의 때와 같이,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.”-마 24:37

A. 헬라어 ‘오느’(파루시아)은 ‘임재’를 의미한다.-마 24:33

1. 고대에 이 단어는 존귀한 사람의 오심을 말할 때 사용했다. 신약에서 이 단어는 가장 존귀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에 사용된다.
2.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는 그분의 임재일 것이다. 그분의 파루시아는 사내아이와 첫 열매의 휴거로 시작하고 성도들과 이 땅에 나타나심으로 끝날 것이다.-마 24:27, 살후2:8, 유 14

B. 주님께서 오시기 전의 상황은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다.

1. 노아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시대에 살았다.-창 6:1-22
 - a.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결과로서, 사탄의 악한 본성이 사람 안에 주입되었다.-창 3:1-6, 요8:44
 - b. 사람의 두 번째 타락에서, 사람 안에 있던 사탄의 악한 본성이 하나님 없는 인류 문화를 발명하고 발전시켰다.-창 4:16-24, 요일 5:19하
 - c. 사람이 세 번째로 타락했을 때, 하나님 없는 문화는 악하고 구부러지고 부패하고 비뚤어진 세대들 산출했으며, 어둠의 악한 세력은 이 땅을 부패하게 하고 폭력이 난무하게 했다.-창 6:1-13
2.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와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에서, 주 예수님은 현재의 우리시대와 노아의 시대가 같다고 말씀하셨다.
 - a. 홍수 전 노아의 세대를 마취시켰던 악한 생활의 상태는 대환난과 주님의 파루시아 전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심각한 상태를 보여준다.-마 24:21, 3, 27, 37, 39
 - b. 우리가 이기는 자들의 휴거에 참여하여 주님의 파루시아를 누리고 대환난을 피하고자 한다면, 반드시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을 마취시키는 영향을 이겨야 한다.-눅 21:34-36

II. “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, 한 사람은 데려가고,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. 두 여자가 멧돌질을 하고있는데, 한 사람은 데려가고,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.”-마 24:40-41

A. 두 남자와 두 여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믿는 이들을 대표한다.

B.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대환난 전에 휴거되는 것이다.-21, 계 3:10

1. 휴거는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완결하는 단계, 즉 우리 몸의 변형, 몸의 구속이다.-롬 5:10, 8:23, 빌 3:21
2.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영접한 신성한 생명의 요구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열렬함으로 인해,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추구하기를 갈망한다.-살전 1:10,2:19, 3:13, 4:15, 5:23
3.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, 우리는 성경에 계시되고 예언된 말씀에 따라, 주님의 임재로 휴거 되어 기쁨으로 그분과 만나기를 고대한다.-마 24:40-41, 눅17:31-36, 21:36

C.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은 비밀한 휴거, 준비되고 성숙한 이들의 휴거를 의미한다.

1. 데려감을 당한 이들과 남겨진 이들의 차이는 생명이 성숙한 정도이다. 한 사람은 생명이 성숙했고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.- 히 6:1
 2. 성숙하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.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예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 자라야 한다. 그래서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, 우리는 성숙하여 휴거될 것이다.
- D.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휴거 되기를 고대한다면, 우리는 반드시 합당하게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을 살면서 매일의 의무에 신실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.-참고. 살후 3:6-15

III. 누가복음 17장 31절부터 36절까지는 휴거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말한다.

- A. 이러한 말씀은 죄악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에 참여하는 혼생명을 묘사한다. 여기 있는 주님의명령은 믿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이기는 것과 관련된다.-눅 17:34-36
- B. 살아있는 믿는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휴거의 부르심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달려 있다.-눅 17:31
 1. 이러한 부르심은 마지막 순간에 기적적으로 산출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, 이전에 주님과 함께한 우리의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.
 2.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진짜 보물을 발견할 것이다. 그 보물이 주님 자신이라면, 뒤돌아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.-눅 17:32
 3. 우리는 주님 자신 이외에 모든 사물이나 사람으로부터 영 안에서 철저히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십자가가 필요하다.-눅 17:31
- C. 어떤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 시대에서 문란한 생활로 이끄는, 마취시키는 영향력을 이기고 주님의 파루시아의 누림 안으로 휴거되었기 때문이다.-눅17:26-30, 34-36
- D.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에서,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고, “장차 일어날 이 모든일을 능히 피할 수 있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 있도록 경고하신다.